현불논단

한국불교학회 50주년에 부쳐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한국불교학회 창립 50주년 행사
사부대중의 후원 · 참여로 회향
무엇을 했고 앞으로 할지 고민
다음 세대 위해 어깨 내밀어야

한국 · 세계서 어떤 평가 받는가
욕심 부린 건 없는지도 돌아봐
부족함 인정해 앞으로 나아가야
새로운 길 · 방향 모색할 수 있다

지난 11월 3일과 4일 동국대학교에서 한국불교학회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사부대중의 후원과 참여로 원만히 회향했다. 단풍처럼 물들은 눈물로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그런데 문득 스치는 생각이 나를 깨운다. 불교학회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한 학회인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학회의 본모습을 진단할 기회가 있을까? 이제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학회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한국불교학회!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불교학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불교학자로서 우리는 불교학의 좋은 연구내용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이어가게 하며 그릇된 연구내용을 버리거나 좋은 연구를 위한 반성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도록,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깨를 딛고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깨를 내미는 것을 수고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50년의 가치를 이어간 한 단체 이야기는 2600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간 승가의 역사에 비하면 손톱 위의 흙덩이만큼이나 보잘 것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50년간 한국불교학회라는 단체에는 열정과 질곡,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불교학자 대중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희노애락의 이야기가 가득했을 것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다. 물이 따뜻하든 차갑든, 깨끗하든 더럽든 강물에 품고 바다로 가듯 한국불교학회도 지난 50년 그렇게 흘러갔다. 지금도 모든 대소사를 학회에 품고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학 중 범어 기초를 세 번이나 반복해 들었을 때 지도교수 폰 힌위버가 물었다. "왜 세 번씩이나 들었는가?" 이에 필자는 "처음에는 몰라서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해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한국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위 대답을 우리의 문제에 연결지어 보자.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는 과연 이해하기 위한 단계, 확신하는 단계, 가르치는 단계 중에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사실대로의 수준을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알아 불교학적 위치를 과대포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불교학 연구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확인하고, 바르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불교학회는 한국의 여러 학회 중에 어느 라인에 자리 잡고 있는가? 세계의 불교학회들 가운데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까? 한국불자, 세계불자에게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율장에 따르면, 비구나 비구니가 깨달음의 위치에 대한 거짓말을 하면 대망어바라이로 승가에서 추방된다. 율장의 내용을 되새기면, 개인이나 불교단체가 학문연구와 수행실천에 대해 속임수를 쓰는 일을 멀리하고 사실대로 밝히는 일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몸을 받아 부처님께 담보로 맡긴 지 30년, 필자는 학자로서도 학문이 소천하고 수행자로서도 수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뿐이다. 우리는 마음 현미경으로 누구의 잘못이나 원망을 찾아내기 위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을 접어두고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한국불교학회도 사실대로 그렇구나 하고 알고 새로운 길을 향해 방향을 찾아나서길 기대한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확고한 연구와 수행으로 매듭지을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 몫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불자에게, 우리 연구자에게 달려 있다.

社 說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 환영한다

조선왕조실록 ·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11월 10일에는 실록과 의궤를 오대산으로 옮기는 이운행렬 재연행사가 진행됐고, 11일에는 고유제가 봉행됐다. 이 같은 기념행사를 거쳐 이운된 오대산 사고본은 새롭게 조성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실록박물관은 월정사가 운영하던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을 새 단장한 것으로, 조계종과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를 위해 이를 국가에 기증했다.

기실 오대산 사고본 환수운동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다. 지난 2006년 3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범한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는 정념 스님과 철안 스님이 맡았고,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이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어진 의궤 환수와 오대산 환지본처를 위한 범도민운동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다. 이는 월정사가 역사적으로 오대산 사고를 지켰던 수호사찰이었고, 그 정신을 지금의 후학들이 이어가고 있어서다.

오대산 사고가 1606년 조성될 당시 월정사 주지는 수호총섭으로 임명됐고, 사고는 승군 20명이 주둔하며 지켰다. 환수운동의 산증인인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이 밝힌 "일본으로부터 실록과 의궤를 찾아오고, 오대산으로 환지본처시키는 일은 월정사의 의무였다"는 말은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

오대산 사고본은 110년만에 제자리를 찾으며 "그 영혼과 역사가 회복"됐다. 이제는 결집된 지역의 역량과 원력을 바탕으로 잘 보존 ·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불교, 시민, 지자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 실천할 불교적 방안 고민을

오랜만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가 '황금유대'를 확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간 순연됐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서울 봉은사 일원에서 개최됐기 때문이다.

이날 한 · 중 · 일 불교도들은 각국 전통방식으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예불을 부처님전에 올렸다. 또한 삼국의 불교도들은 "새로운 시대에 불교도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받들고 황금 유대 관계를 계승해 인류 행복, 세계평화 구축에 기여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4차 산업시대 불법홍포를 위한 불교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강연회에서는 일본이 개발한 불교 관련 챗봇 '붓다봇'의 의미와 한계, 불교도의 역할 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4차 산업시대 불교도의 역할로 윤리적 문제 해소를 꼽고 "과학기술 개발이 초래하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는 수행을 통한 공성의 자각과 자비심의 발현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국 불교계는 대회 마지막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불살생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모두가 공생하는 지구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항상 지적돼 왔던 것처럼 3국의 불교가 제시하는 공동선언과 교류들이 선언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3국의 불교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공동선언문에서 그 고민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2024년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긴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자존감 높이기

자존감은 자아존중감을 줄인 말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불장군처럼 자기만을 내세우거나 최고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존재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존감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자신을 스스로 패배자로 만들어 자살한다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절대 스스로 패배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명예와 학력, 경제력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대와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도 행복의 요인입니다.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고귀한 존재인데,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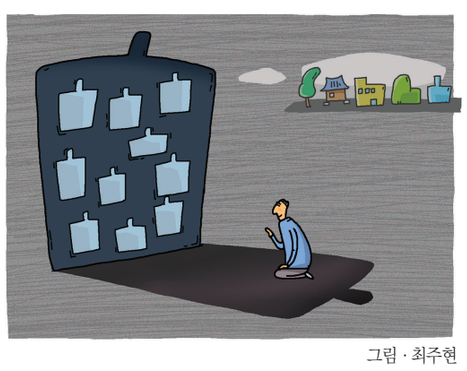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외부적인 형상에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비교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자존감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자체만으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존감을 허물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 성품 즉 불성(佛性)이지요. 부처님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인데, 왜 겉치레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존감을 잃어야 합니까? 내가 왜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을 비롯하여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은 오롯이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모두 각자가 고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타인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도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